



우리의 家章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沈 宜 洛
編輯人：沈 載 烈 (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非 賣 品 1996. 1. 3 登 錄 番 號 書 爾 拉 - 549 號

홈페이지 | www.csshim.or.kr

謹 賀 2009 (己 丑) 新 年



대 宗 會 회 장
沈 宜 洛

己丑年 새 아침을 맞으며

희망과 기대 속에 밝은 새해를 맞아 먼저 대한민국과 우리 대종회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전국 22만 종인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만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도리켜 보면 작년은 우리 대종회에는 희비가 엇갈리는 한해였습니다.

尊敬하는 故 明求 會長님의 他界를 애도하는 와중에서도 청송찬경회관의 준공, 대전뿌리공원의 조형물 제막, 시조제 각인 찬경루의 국가문화재 승격과 아울러 약 70억원의 국가예산으로 찬경루의 대대적인 중수와 그 일대의 공원화사업 진행 등으로 우리 심문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또한 2005년부터 시작된 안성 청화부원군 위토소송도 장장 3년여 만인 작년 12월초에 대법원의 승소판결로 위토를 보존할 수 있게 되는 등의 경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업들은 故 明求 會長님께서 수년 전부터 계획하여 추진하신 것으로서 다시 한번 고인을 흠모하게 합니다. 그러나 국내외 정세는 너무 급변하고도 긴박하였습니다. 연초부터 좌경반정부 세력들의 책동으로 일어난 광우병파동으로 국력이 크게 쇠잔한 상태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그 한파는 우리나라를 엄습함으로써 청년백수는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연쇄도산과 대기업 및 정부투자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가장들이 거리로 퇴출됨으로서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져 서민생활은 고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금년 상반기에 더욱 악화되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금년 성장목표를 낮추어 3%의 플러스 성장을 기필코 달성하고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연초부터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에 우리 국민들은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정부시책구현에 협조해야 할 것이며 우리들 일반가정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해외여행 자제를 비롯하여 절전, 절수 등 생활의 검소와 내핍으로 이 난국을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종회에서는 금년에도 5處산소와 위토의 수호보존은 물론 대종회 발전에 매진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오는 4월 定期總會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국 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지도편달을 경망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이 성공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새해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己丑 元旦
青松沈氏大宗會 會長 沈 宜 洛



안 효 公 宗 會 회 장
沈 斗 燮

己丑年 새 아침에

2009년 1월 1일 기축년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宗人 여러분 금년에도 건강하시고, 집안이 고루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무자년에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한해였습니다. 소위 미국발 경제위기로 지구촌 전체가 술렁이고 우리나라도 이에 휩쓸려 증권·금융 및 실물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당국과 같이 난국의 타개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국민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세인을 놀라게 하였고, 오일 쇼크도 견디어 냈으며, 외환위기도 극복하였습니다. 우리는 저력이 있습니다.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여야겠습니다.

중회 소식으로는 먼저 대종회를 반석위에 올려놓으시고 타계하신 명구회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의락(宜洛) 부회장께서 풍부한 경륜을 가지시고 회장 직무를 대행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의 安孝公 중회는 지난해 충남 태안군에 염전을 마련하여 품질 좋은 소금을 생산하게 되었으며 금년에는 안효공 묘역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고 앞으로 안효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포의 信川公 중회에서는 조선조 후기 유학자인 정좌와공 휘 조(諱:潮)의 사당인 향현사(鄉賢祠)가 6.25동란 때 훼손된 것을 이번에 중수하여 옛 모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종인 여러분 금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라 사료되지만 예년과 같이 중중행사에 동참하시어 조상의 공덕을 찬미하시고, 종인간의 화목을 돈독히 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었던 지난해를 보내고 희망에 찬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축년 아침
청송심씨 안효공중회 회장 沈 斗 燮 올림

- 顧 問：魚澤 成澤 相琦 鍾燮 晶求 宜燮 載鴻 載榮 載完
- 指導委員：相明 相弼(고양) 完求 達燮 大燮 完燮 璋燮
- 會 長：宇永 大平 勳鍾 漢埃 龍俊 允宗 基哲
- 副會長：庚周 斗燮 甲輔 相郁 相股 贊求
- 監 事：相稷 載冕 春植
- 執 行 部：總務理事 鍾赫 財務理事 種福 文化理事 載烈
- 有 司：(青松) 宜亮 相燾(咸悅) 塔燮(安城) 光澤(漣川) 良燮(淸州) 成輔
- 理 事：(서울) 堯澤 宜杓 相學(월계) 相贊 相昺 相默 相學(쌍문) 相翰 映求 亨求 仁求 星求 載求 泰燮 昌燮 洪燮 容圭 載萬 光永 載金 殷植 在錫 元植 載澈 載珍
- (釜山) 相均 載德 萬仁 載榮 敬道 載富 秀輔 仁輔
- (大邱) 虹燮 鼎澤 湖澤 護雄 賢錫
- (大田) 逸燮 玄根 宜哲 載重 揆燦
- (仁川) 在安 然澤 相圭 駿求 德求 健燮 大植 載善 載警
- (光州) 愚慶 相八 鎮植 鍾德 在均 觀燮 憲燮 判求 石燮
- (蔚山) 應輔 根植 吳植 壽輔
- (江原) 相汶 相祐 晟求 東燮 正輔 敏燮 在敦 相夏 相甲
- (京畿) 載殷 相鴻 載求 茂植 愚弘 東出
- (忠北) 相龍 相億 載玉 相勳 相英 相弘 上銀 元燮 康燮
- (忠南) 文錫 載潤 昌輔 相厚
- (全北) 應埠 政燮 相德 一用 洵燮 載萬 永澤 載緒 載成
- (全南) 相錫 載龍 中鎮 彰來 麟澤 相鶴 鍾漢 相高
- (慶北) 載善 甲澤 仲燮 載令 允澤 仲根 泓植 永鍾
- (慶南) 相錄 相貴 相哲 仁求 斗燮 載政 尙道 安輔 秀一
- (慶南) 蓮澤 相國 宜石 在叔 花鮮 載根 容爽 載德 在玉
- (慶南) 鎮奎 東燮 弘輔 吉燮 柱燮 在圭

謹 賀 新 年 青 松 沈 氏 大 宗 會

多事多難했던 戊子年 한해가 지나가고 希望찬 己丑年 새 해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일가 여러분 새해 福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을 成就 하시기 바라며 家庭이 平安하고 幸福 하 시기를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새해를 맞이하여!



仁壽府尹公宗會會長 沈晶求

어렵고 힘들었던 戊子년을 뒤로 하고 꿈과 희망이 가득 찬 己丑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가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平安하시고 항상 幸運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가내가 萬事亨通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지난해에는 국가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강타로 우리 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어려운 경제난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宗中에서도 과다하게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일가 여러분의 염려 덕분에 무난하게 지난해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새로운 對策과 方案을 더욱 준비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3處(仁壽府尹公, 良惠公, 忘世亭公) 묘역관리 및 시향봉행을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일가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젊은이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우리 모두에게 希望을 주는 한 해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가 여러분!

戊子년 새해에는 우리 靑松沈氏 모든 일가분들이 和合 단결하고 마음을 터놓고 오순도순 宗事를 논의하여 으뜸가는 宗中이 되도록 끊임없는 참여와 협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중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일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健康과 幸運이 充滿하시기를 祈願합니다. 감사 합니다.

仁壽府尹公派宗會會長 沈晶求

朝鮮後期 天才畫家

현재(玄齋) 심사정(沈師正) 평전(評傳)

겸재(謙齋)에게 그림을 배우다 - ④

6월 13일 경종이 등극하자 병신처분 후 숨죽이고 있던 소론들이 차츰 머리를 들기 시작하니 7월 11일 이광좌(李光佐, 1674-1740)가 예조참판으로, 송성명(宋成明, 1674-1740)이 부승지로 출사하고 7월 18일에는 조태구(趙泰耆, 1660-1723)가 이조판서가 되었다가 10월 12일에 우의정으로 정승반열에 오른다.

이런 와중에 겸재는 12월 12일자로 하양(河陽) 현감(鎭 6품)에 제수 된다. 현감직은 비교적 뜻대로 행정에 포부를 펼칠 수 있고 녹봉 이외의 수입도 얻을 수 있어 하급관리들이 선망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빨리 현감직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그의 집안사정을 껴볼았던 김창집 일가의 배려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인사권을 담당하는 이조판서직은 노론인 옥오재(玉吾齋) 송상기(宋相琦, 1657-1723)에게 넘어갔다가 11월 26일에는 역시 노론 중진인 구계(句稽) 권상유(權尙游, 1656-1724)에게 넘어간다. 송상기는 겸재 그림에 심취하여 겸재와 지음(知音)을 허락하고 겸재의 진경산수화를 극찬하던 담헌(湛軒) 이하곤(李夏坤, 1677-1724)의 장인이고 권상유는 우암의 수제자로 율곡학파의 제 4대 수장이던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아우였다.

한편 玉吾齋는 김창집의 내종사촌 아우였고 권상하는 김창집의 내종사촌 매형이었다. 그러니 겸재가 하양현감이 되는데는 김창집 일가의 어른들은 물론 이하곤 같은 친구들의 도움이 컸으리라 생각된다. 하필 하양으로 임지를 정한 것도 북송의 대화사인 곽희(郭熙)의 고향이 하양이라서 곽하양의 별호로 불리워짐으로 정하양의 별호로 이에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듯 하다.

이에 이하곤은 설 쇠고 경종 원년(1721) 신축 정월에 임지로 떠나는 단급의 벼 겸재에게 이런 전별시를 지어 위로와 축하를 겸하고 있다.

「한별 관복 반쯤 새를 갔으니, 십년을 낮은 벼슬로 서을 먼지 속 달렸으구나.

딱딱이 치며 고생한 뜻 알아야 하네, 다만 어머니 위해 가난치 않으려 했던 것을.

정월 동풍에 눈은 수레에 차고, 용추 남쪽 산마루에 걸린 구름은 아득하다.

자네 이 곁을 맑은 흥취 더하려는 것 아니, 하양 한 골 꽃을 다스리겠지.

읍이 작아 말만하면 어떠하겠나, 백성이 순박하고 기쁨 많은 것 신라의 뒤꼍이겠지.

보내며 난 새가 가시에 깃드는 것 한탄 많음은, 자네 어머니 진지 상에 날마다 생선 드릴 것 아는 탓이네.

가슴속에 선천학(先天學, 周易) 갖추어 있고, 붓끝에 반점 티끌도 원래 없구나.

이미 기인(畸人)을 향해 문안을 넘겨다보았으니, 문득 동현재(董玄宰)에게서 정신 뻗게나.

도산(陶山) 한 구비에 퇴계(退溪) 사셨으니, 시냇가 사립문에 늙은 나무 많겠지.

조만간 자네는 가서 그릴 터, 먼저 한 장 그려내어 내게 붙이게.

15세 소년인 현재도 스승 겸재가 외직(外職)으로 나가 있는 동안 화법수련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스승이 상경하는 날 다시 뵈기를 기약하며 겸재택 출입을 중단했을 터인데 이것이 스승과의 영이별이 되었으니 어찌 이 일을 꿈엔들 생각했었겠는가.

9. 참담(慘憺)한 현실

이때까지 현재는 조부가 과옥죄인이 되어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는 사실 이외에는 큰 불행을 모르고 살고 있었다. 그의 모친 하동 정(鄭)씨(1678-1744)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문인으로 그림에 능했던 육오당(六吾堂) 정경흠(鄭慶欽, 1620-1678)의 셋째 아들 곡구(谷口) 정유점(鄭維漸, 1655-1703)의 무남독녀 외딸이라 곡구의 경저(京邸, 서울집)인 인왕곡 집을 물려받아 살면서 외조모 풍천 임(任)씨(1656-1727)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게 손위형인 심사순(沈師淳, 1701-1723)이 있었지만 청평위 심익현(沈益顯, 1641-1683)의 장자인 심정보(沈廷輔, 1658-1727)에게 양자로 가서 청평위의 봉사손(奉祀孫, 제사를 받드는 후손, 보통 적장손이 받든다)이 되니 현재는 그로부터 집안의 유일한 아들로 남게된다.

심정보는 원래 외아들이 있었으나 그 첩인 심사하(沈師夏, 1705-1742) 모친이 시기심으로 독살하여 후사가 단절되었다. 그래서 심정보는 심사순을 양자로 들이니 대체로 심익창의 환갑해인 숙종 38년(1712) 전후한 시기일 듯하다. 심익창은 바로 전년(1711) 8월경에 귀양에서 풀려 집으로 돌아와 있었는데 심지원의 아들로는 유일한 생존자였으니 당연히 문장(門長)의 자격으로 청평위 후사문제에 관여하려 했을 것이다. 청평위궁이 누리는 왕척(王戚, 왕의 친척)으로의 위상과 막대한 상속재산이 탐났을 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6세 연하의 조카인 심정보에게 자신의 장손에 해당하는 심사순을 양자로 보냈을 것이다.

여기에는 심정보의 부인 전주 이씨(1659-1742)의 의사가 크게 작용했을 터인데 전주 이씨는 정종(定宗) 10남 덕천군(德泉君) 후생(厚生, 1397-1465)의 후손인 이조판서 이정영(李正英, 1616-1686)의 제 6녀로 그 부친 서곡(西谷) 이정영은 왕희지체에 능하고 전주(篆籀)에도 정통한 명필로 소문나 있었다.

潤松文華 韓國民族美術研究所 轉載

< 다음호에 계속 >

- 理事 總務 昌輔
- 監事 載求
- 副會長 鍾赫 大植
- 會長 贊求 鎮植 根植
- 顧問 鍾燮 完求 璋燮

靑松沈氏 仁壽府尹公宗會

謹賀新年

- 理事 (시울) 相文 讚秀 宜杓 載春 容圭 彦容 種福 忠澤 (익친) 在安 相直 光燮 載球 相國 (수원) 相哲 相燮 彦澤 相元 相益 相武 彦植 應鎮 舜鎮 相革 相讚 彦成 彦契 相昇 玉鎮 英燮 相雨 相福 (화성) 國鎮 相鳳 相鶴 (군포) 揆逸 (평택) 文鎮 (과천) 應璋 (김포) 康燮 相達 昌燮 允輔 學燮 相弘 炯燦 (성남) 載烈 相甲 (일산) 文錫 (용인) 寬鎮 永周 星澤 彦昌 相浩 景燮 相穆 (안성) 振裕 俊澤 相旭 錫圭 政燮 (과주) 仁燮 海燮 榮燮 (여주) 平來 (춘천) 仁燮 載益 (원주) 正輔 相烈 (대전) 宜哲 應斗 載榮 奉燮 連輔 星輔 玄根 (칭주) 成輔 載龍 相昊 (충주) 中鎮 成來 興來 (아산) 彦昇 仲根 (진주) 在圭 (광주) 堯燮 勝俊 憲燮 (익산) 相睦 相泳 相國 瑑燮 仁求

- 元 老 成澤 載鴻 宜亨 奭鎮 元燮 甲輔
- 顧問 長 魚澤
- 副會長 永澤 庚周 相龍
- 運營委員 光澤 萬鎮 行鎮 相八 相德 彦浩 明玉 敏玉 寬錫
- 總務 鳳鎮 文洙 茂燮
- 監事 相稷
- 財務 載玉
- 管理理事 相億
- 墓下管理事 彦村 應植 權裕

靑松沈氏 安孝公宗會

謹賀新年

12世祖 嘉善大夫 平安監司公 諱:澤(휘:택) 墓碣銘 (下)



▶ 嘉善大夫 平安監司公 諱:澤 墓所 소재지: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선영하



▶ 묘표석

< 지난호에 이어서 >

공의 생김새는 키가 크고 얼굴이 검으며 귀가 크고 얼굴 모양이 잘 생겼다. 겉은 온화하고 속은 명확하며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것은 그의 성품이다. 과거공부를 할 때부터 다른 사람이 열을 알리고 하면 나는 그 백배인千을 알고자 노력했고 벼슬을 해서 사관(史官)(23)이 되어서는 옳은 도리를 지켜서 변하지 아니한 것이 공의 의리이다. 나는 白馬峯에서 귀양살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고을 사람들이 공에게 자식처럼 따라다니면서 글을 배우고 글자를 물었다고 한다.

병·정년(丙丁年)(24) 이후에는 고을 안을 돌아다니면서 명수(命守)(25)의 일을 방해하는 자를 잡아들였다. 그래서 관명을 잘 따르는 자를 도와주고 싫어하는 자는 때를 찼다. 고을 백성 가운데 박사명(朴思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명수를 힐끗고자 나라의 장단을 이러쿵저러쿵 험담하면서 명수를 씹었으나 공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사명을 잡아들여서 머리를 자른 뒤 군계(郡界) 위에 효수(梟首)(26) 해 두고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 때부터 주민들이 처음 국법이 엄중함을 알았고 아전들도 처음으로 명령이 두려운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일어나서 칭찬하였다.

「공의 이번 조치가 어찌 한 고을에 법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국가의 형편이 어려울 때 다른 옥에서든 본을 받을 것이니 재물을 모으고利息이 불어나게 하는 일은 특별히 그 밖의 일일 것입니다. 일방의 책임자가 되는 체통(體統)(27)이 다른 고을과 달라서 솟돌에서 막 갈아놓은 갈과 같다면 어느 곳이든 회복(恢復)(28)시키지 못하겠습니까. 平安의 한 도는 가장 공의 노련한 능력을 표시할 좋은 곳입니다.」

빈관(賓館)(29)을 개수하고 토지경계를 바르게 하며 창고를 채우고 지적을 정비하여 군대를 훈련하고 병기를 수선하니 털끝 만한 작은 일이라도 공의 손을 경유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공보다 앞에 와서 이 자리를 지킨 자나 공보다 뒤에 와서 이 자리를 지킬 자가 과연 공과 같이 마음을 다할 사람이 있었겠는가. 그가 상부에 요청한 오가일통법(五家一統法)(30)은 임금께서 이것이 좋은 계책이라 하여 각신(閣臣)(31)들에게 내려보내 상의해서 실행하도록 했는데 공이 갑자기 떠나갔으니 하늘인들 어찌하겠는가.

공이 안으로 마음을 닦은 일은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크게 지나침이 있었으니 스스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일찍 고아가 되어 죽을 때까지 사람을 슬프게 한다.」

또한 공의 부모의 일에 말이 미치면 반드시 슬프게 눈물을 흘렸고 가묘(家廟)(32)를 배알(拜謁)(33)할 때도 또한 그러했다. 그 형을 섬기기를 엄한 아버지처럼 하여 형이 북방의 안서사로 나가서 병이 들었을 때 공이 三陟에서 길을 배로 걸어서 나아가 병을 진맥하고 약을 지어 바쳤다. 당시 초조하던 낮빛을 북쪽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칭찬하고 있다. 형수를 섬기고 조카를 양육하여 공경과 은혜를 다했고 외조모를 봉양하여 또한 그 도리를 다했다. 그 성대한 행위는 비록 이령백(李令伯)이라고 하더라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었다.

부인은 청주 한씨로 서원부원군 문양공(西原府院君文襄公) 계미(繼美)의 6대손 이며 사과(司果) 근(近)의 딸이다. 부드럽고, 기쁘고, 깨끗하고, 맑은 성품으로 남편을 잘 섬겨서 온순하면서 예의 바르며 자녀를 사랑으로 가르쳐서 검소하게 하였으며 잉첩(媵妾)이나 시비(侍婢)들까지도 自在하게 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딸 하나를 낳고 아들은 없다. 족질(族姪)을 데려다가 양

자를 삼으니 이름은 서규(瑞奎)이다. 승지 임효달(任孝達)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나 자식이 없이 오래 전에 죽었다. 瑞奎의 뒤를 이은 사람은 윤원(胤元)으로 공의 형님의 아들 서견(瑞肩)의 둘째 아들이다. 사위는 전현감 김군석(金君錫)이다. 6남 3녀를 낳으니 맏아들은 념(愼)이요, 둘째 아들은 렴(廉)이다. 공과 부인이 데려다가 기르면서 己出 같이 대했지만 겨우 장가 가면 서로 이어가면서 오절(夭折)했다. 양자(楊子)가 말한「옳만 트고 자라지는 못한 것」이다. 나머지는 어리다. 맏딸은 진사 이선악(李宣岳)에게 출가하고 나머지는 어려서 시집가지 아니했다. 측실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으나 장가들자 곧 죽었고 남녀 각 하나씩 있다.

명(銘)하여 이르기를

충성과 효도를 다한 심공은 동국의 위인(偉人)이다. 늦게 때를 만나서 명예와 건강을 다 펴지 못하였는가.

다만 그 칼자루를 잡아 빛나는 충절을 세웠고 안절(按節)의 동인(銅印)(34)을 차고 나라 안을 돌아다니지 않았는가.

저 적의 무리를 소탕하였으니 그 일이 더욱 위대하구나. 목숨을 조금만 더 연장해 주었으면 나라 위해 더 많은 업적 남겼으리.

독사가 자라서 간담을 찢고자 했지만 끝내 독이 될 수는 없었다.

우뚝 솟은 長城에 천리를 이어가는 안전한 성첩 쌓았네. 어찌 안양의 도리를 어겨서 하늘이 이렇게도 빨리 빼앗아 갔는가.

임금님 슬퍼하시어 죽은 뒤 영화가 골고루 이르렀네. 내 묘비에 명을 하니 어두운 곳에서나마 보아주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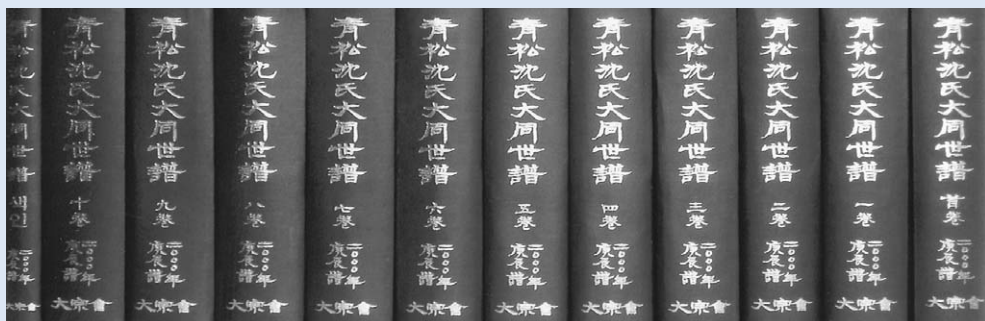
< 판중추부사 조경(趙綱) 지음 >

주(註)

- (23) 사관(史官) : 궁중의 명령을 출납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관리, 또는 역사 편수관.
- (24) 병정년(丙丁年) : 병자호란이 일어난 해, 즉 병자 정축년.
- (25) 명수(命數) : 왕명을 받고 고을을 지키는 관장, 목사, 부사, 군수, 현령 등.
- (26) 효수(梟首) : 중죄인의 머리를 잘라 남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걸어둠.
- (27) 체통(體統) : 위신, 행동의 표준을 지키는 일.
- (28) 회복(恢復) : 원상복귀 시김.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침.
- (29) 빈관(賓館) : 손님을 접대하는 곳, 영빈관.
- (30) 오가일통법(五家一統法) : 다섯 집 단위로 한데 묶어서 마을의 경비, 생활의 협조 등을 맡게 함.
- (31) 각신(閣臣) : 대각의 신하. 장관 이상의 신하.
- (32) 가묘(家廟) : 개인 집의 사당.
- (33) 배알(拜謁) : 찾아서 절하고 뵈음.
- (34) 동인(銅印) : 동으로 만든 인수.

< 끝 >

大同世譜(庚辰譜) 申請案内



CD롬 2개



2002년도에 발간·배포한 대동세보(경진보)를 아직까지 모시지 못한 집안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전 12권(수권, 자손록 10권, 색인 1권)과 CD롬(대동세보 전 내용과 시조 ~ 4세조 산소 동영상)을 수록하였으며, 모든 한자에 음 표기함
- ◆ 보급가격 : 22만원(CD롬 포함), 별도 구입(CD롬 : 20,000원 / 수권 : 40,000원)
- ◆ 송금구좌 : 농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중회)
- ※ 대금을 송금하신 후 대중회(02-2267-7857, 팩스 : 02-2269-7755)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 ※ 대동세보 편집자료 제출시 족보예약금을 납입하고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청송심씨대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shim.or.kr)에 명단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대동세보 속편(靑松沈氏世考選, 祭享笏記, 宗보축쇄판, 手帖, 鬻지 포함) : 100,000원

『책자 강매』 주의

대중회를 사칭하면서 책자 구입을 강요하는 전화가 많습니다. 책자를 보내오면 대금을 송금하지 말고 즉시 반송하시기 바라며, 다른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회에서는

대동세보(경진보 : 22만원)와 대동세보 수권속편(10만원) 외는 보급하는 책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 沈 星 求

조선시대 栗谷 李珥의 경장론과 폐법의 고찰 - ⑥

1. 서언
2. 본론 - 조선전기의 정치적 사회관
 - 1) 율곡의 국가관과 사회사상
 - 2) 율곡의 경장론과 폐법으로 개혁을 주장
 - 3) 파주향약(坡州鄉約)에서 선양(先養) 후교(後教) 강조
 - 4) 율곡의 철학관과 이기심성론의 전개
3. 결론 - 이기치묘의 발전적 원리와 현대적 관점

3. 결론 - 이기치묘의 발전적 원리와 현대적 관점

여기서는 기발이승(氣發理乘)이나 이통기국(理通氣局)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기치묘(理氣之妙)는 理와 氣가 오묘하게 합해져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이기묘합(理氣妙合)의 준말이다. 율곡이 처음 말한 것은 아니고, 중국 당나라 아부구공(亞父丘公)의 풍수지리설에서 사용한 것이다. 조선 초기에 정여창(1450-1504), 조광조(1482-1519), 송기수(1507-1581), 서경덕(1489-1546), 이황(1501-1570), 기대승(1527-1572)에 의해 사용된 말이다. 그러나 율곡은 천지만물 모두가 理와 氣가 오묘하게 합해있다고 하고 있다. 형이상(形而上)과 형이하(形而下)가 하나의 존재모양으로 있다는 말이다. 율곡의 설명을 살펴보면 理와 氣가 어느 시간적 계기에서 합해진 것이 아니라, 본래 합해져 있다는 점에 강조를 한다.

그러므로 理와 氣는 시간적으로 선후(先後)가 없고 공간적으로는 조금의 간격도 없다는 것이다. 理는 형이상자요, 기는 형이하자로 서로 다른 둘인데, 하나의 존재양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존재모양으로 있지만 그 속에서는 理는 理이고 氣는 氣로서 구별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그는 '하나 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一而二 二而一)'라고 하고 있다.

존재자체로 보면 理와 氣는 구별할 수 없는 하나로 있는데 그것을 가치관으로 나누어 보면 理와 氣는 엄연하게 구별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오묘한 관계를 율곡은 간략하게 그의 가치관의 조화를 말하고 있다. 理와 氣의 관계를 말하면 여기서 理는 윤리적, 정신적 가치를 말하고 있으며, 氣는 경

제적, 물질적 가치를 의미하고 있다.

또 理를 사상적인 윤리적 가치로 본다면 氣는 경제적, 현실적 가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기치묘(理氣之妙)는 이상과 현실의 조화, 윤리와 경제의 조화 정신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조화는 단순한 합(合)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다. 서로 다른 理와 氣의 가치를 각각 양쪽의 주장이 온전하게 하나로 소통되는 의미의 조화인 것이다. 율곡은 존재세계에서만 理와 氣를 말(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가치세계에서도 理와 氣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율곡의 균형 잡힌 정신은 현대적 균형잡힌 시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유학에서 말한다면, 공맹(孔孟)의 원시유학과 宋明理學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理學에도 '심즉리(心即理)'와 '성즉리(性即理)'의 구분이므로 생각할 수 있다.

정주(程朱)의 '성즉리(性即理)'의 학문은 '理와 氣'라는 두 개념으로 천지의 변화와 만물의 생성과 사람의 심성문제를 해석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성리학은 비록 주자의 이기사단칠정(理氣四端七情) 문제에 관하여 같이 않는 견해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충효(忠孝)와 명륜(明倫)을 중심으로 '인애(人愛)', '성신(誠信)', '화합(和合)'의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는 200여년 동안에 그 체제가 국민에게 신체의 자유와 거주, 언론, 종교 등에 자유가 있게 하였으며 생존권, 근로권, 재산권이 있고 법으로 규정된 일련의 의무가 있다. 이외에도 민주사상으로부터의 '인권' 중시는 1948년 UN에서 '인류 공통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려는 내용으로 '세계 인권 선언'을 제정하였다.

지금으로부터 400여년이 넘는 오늘날 우리는 율곡의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점에 대해 동양유가의 경전과 후세 유학자의 저술에도 모두 보편적인 人道와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고 分明하게 자연스레 나타나게 되었다.

沈 星 求
(파주문화원 수석부원장, 성균관 전례연구위원)

沈영감의 심민섭



派(地域) 宗會旗 製作 申請

2006년부터 우리門中의 家章을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각 派宗會 또는 地域宗會에서 보유하고 있는 宗會旗를 교체하여야 하는바, 대종회에서 일괄 제작하여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기존의 宗會旗를 교체하거나
- ▶ 宗會旗를 새로 제작하고자 하는 派(地域)宗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宗會名	靑松沈氏	宗會
住 所		
電話番號	宅: - -	
	휴대폰: - -	
제작금액	150,000원 (깃대포함: 180,000원)	

허사시(虛事詩)

대종회이사 沈仁求

인생백년 산다해도 슬픈 탄식뿐
우리생명 무언가 뜬구름 갔구나
그 헛됨은 그림자 지나갔으니
인생 일로 헛되고 또 헛되구나

땀흘리고 애를 써 모아논 재물
안고가나 지고가나 헛수고로다
빈손으로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으로 갈 것이 명백치 않나

토지 많아 무엇해 나죽은 뒤에
六尺壙中 일장지 넉넉하오며
의복 많아 무엇해 나 떠나갈 때
壽衣 한 벌 棺 하나 만족하지 않나

2008年 6月 1日 광탄면 창만리(도마매) 金屏山 麓原에 八十七歲 인생을 마치고 한 필 심베에 감긴 싸늘한 屍身이되어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영원한 幽宅으로 서서히 들어가는 幻想이 아닌 현실을 지상에서 내려다보며 心中에서 泣淚詩想하면서.

兄任이시어 永世永樂是寧하소서.

2008년 9월 5일(永眠百日)
族弟 仁求 謹詩

대동세보 수권속편(외 4종) 신청안내

구 분	페이지	가 격	신청부수
1. 대동세보 수권(속편)	1,134	50,000원	()권
2. 청송심씨세고선(한시집)	448	30,000원	()권
3. 종보축쇄판(1-50회)	400	20,000원	()권
4. 제향홍기(휴대용)	30	3,000원	()권
5. 종사수첩(휴대용)	120	3,000원	()권
6. 뺏 지		1,000원	()개

▶ 1, 2, 3 세권을 일시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4, 5, 6 세가지 물품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 수령인 주소 및 송금내역

파 명	이 름	집 전 화	
		휴 대 폰	
주 소		우 편 번 호	
송금일자	송 금 인	금 액	송 금 은 행
		()은행 ()지점	



수권속편 질 단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1질 단위는 발송비 없음.
- ◆ 질단위 외에는 발송비 3,000원을 대금에 합산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주소는 번지와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기재, 집전화·휴대전화를 꼭 기재요함.
- ◆ 송금인이 본인이 아니면 반드시 송금인의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100-310 서울 중구 오장동 14-10(찬경회관)

TEL: 02)2267-7857, 2263-7897 FAX: 02)2269-7755

* 송금구좌 농협 084-01-193626(청송심씨대종회)



독립운동가 심상각선생의 생애

◀청년시절 모습



▲심상각 선생 묘소

沈相格先生은 1888년 12월 10일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서 태어나셨다. 선생은 어려서부터 품행이 단정하고 매사에 사려 깊게 행동하였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유달리 애국심이 투철하여 나라가 망하고 일본에 식민지로 전락된 것을 한탄하시다가 결국에는 祖國을 해방시키고자 하는데 뜻을 세우고 이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신간회」에 가입하

였다. 숨어서 일을 해야하는 처지이기에 항상 따라붙는 왜경의 감시망을 피해 활동하던 중 己未(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봉기하였다. 선생은 미리 신간회 동지들과 뜻을 함께하여 19인의 結社를 즉각 조직하고 연락망을 통해 5000여명의 군중을 소집하였으며 이 군중이 운집한 公農시장(恭陵市場)을 출발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만세운동에 불을 당겼

다. 성난 군중은 먼저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접수하고 이어 봉일천(奉日川)에 남 파주경찰서 주재소로 진격하고 파출소의 왜경들과 지척지간에서 대치하였다. 성난 군중들이 목이 터져라 만세를 부르며 금방이라도 쳐 들어갈 태세를 보이자 겁을 먹은 왜경들이 마구 총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현장은 삼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생겨났다. 이리되자 군중들은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눈 깜짝 할 사이 벌써 10여명이 총에 마저 숨졌으며 70여명은 총상을 입고 쓰러지는 참상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할 수가 있겠는가? 신식무기로 무장하고 죽기로 쳐들어오는 여러명의 왜경을 상대로 맨주먹으로 어찌할 길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분을 삼키며 그곳을 떠나고 말았으니 이것이야말로 힘없는 백성들의 절규로 끝난 것이다. 이일이 있던 후 왜경은 다음날부터 총출동하여 봉기에 앞장서서 지휘한 수모자급을 체포하여 총살을 하는 등 만행을 저지르고 계속하여 또 다른 수모자급을 찾는데 혈안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곳에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적극적으로 왜구

들과 맞서 싸우겠다는 일념으로 고국을 떠나 中國 上海 임시정부로 들어갔다. 선생은 상해로 오자마자 당시 임정에 내무장관으로 있던 박찬익(朴讚翊) 선생의 도움으로 그의 조직에 합류하여 막강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상해 농업전문학교에 들어가 新式文物에 대한 지식을 넓히는 등 몇 년간에 벌써 많은 실적을 쌓아 어느덧 상해 임시정부의 主要人物이 되었다.

후일에 알게 된 것이지만 日本 外務省과 陸海軍省文書 제2집에 보면 「대한민국임시정부각료의 당파별보고」(大韓民國臨時政府閣僚의 黨派別報告)라고 한 비밀문서에는「申翼熙, 尹普善, 朴讚翊, 沈相格, 趙德律, 卞志明, 金容喆 外」를 당시 臨政法務長官이던 申圭植선생의 계열로 分流되어 있었으며 「親美·親中の 옹호파이나 군사행동의 주장 자들」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선생은 당시 왜경들에게 第一의 사찰대상인물(查察對象人物)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후 시국이 잠잠해진 틈을 이용하여 고향인 파주로 돌아와「광탄보통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으로 취임하여 훗날 나라를 이끌어갈 많은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였다. 이렇게 지내던 중 꿈과 같이 祖國光復의 날이 찾아왔다. 선생은 아이나 어른이나 손에 손에 태극기를 잡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를 외치며 뛰는 그 광경을 보면서 26년 전 주재소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쳐대며 쓰러져가던 그 얼굴들이 눈에 선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8월 15일 우리나라는「大韓民國政府」가 수립됐다. 이 얼마나 고대하고 목숨을 걸고 찾으려던 조국이던가!!

그런데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 국토는 분단되고 6.25 전쟁이 발발하여 수많은 국민이 죽어 가는 것을 보면서 국가의 운명이 이리도 야속하기만 한지가 습이 미여지는 듯 쓰리고 아픈 마음을 가늘 길이 없었다. 선생께서는 끝내 통일 조국을 보지 못하고 휴전이 되던 이듬해인 1954년 9월 11일 66세를 일기로 운명하셨다. 평생을 걸고 소원하던 통일 조국인데... 그 한 많은 세월들이 못내 서글프기만 하다

2009년 1월

88

표창장 1977년 12월 13일 대통령 박정희
훈장증 1991년 4월 13일 대통령 노태우

담 양

물어 물어 발을 디디
소쇄원을 접어드니
대하(大河)를 읽어주고
심우(心宇)를 열어주는
망고에 찬란한 시가(詩歌)
무등산을 드높인다.

시조시인 심성보
(부경대학교수 공학박사)

죽산골 산죽나무
춘강(春江)에 흥건하고
실버들 하늘하늘
봄치너 실레신다
뜯방은 느리길 나그네길
숯불 피운 자운영.

모퉁이 길목에는
산채나물 진한 주막
톡 쏘는 흥어맛이
조선술을 끌러오고
저녁별 서포(西浦)로 간 뒤
등근 달을 걸는다.

平生性癖小營爲 一任天公處分宜
薇蕨滿山寧學圃 藤蘿繞屋自成籬
風無夙約時時到 月不相期夜夜隨
外客休言塵世事 北窓高臥夢軒羲

▶亭岩 沈相局 書

二世祖 閣門祗候公 遺墨詩 / 안분음(安分吟)

平生性癖少營爲 一任天公處分宜
薇蕨滿山寧學圃 藤蘿繞屋自成籬
風無夙約時時到 月不相期夜夜隨
外客休言塵世事 北窓高臥夢軒羲

평생에 타고난 성질이 살림살이 하는데 관심이 적어서 모든 것을 하느님에게 맡기니 그 처분이 마땅하였네 고사리가 산에 가득하니 따로 남새밭 가꿀 것 없고 등나무가 집을 둘렀으니 자연스럽게 울타리가 되었네.

바람은 약속하지 않았으나 때때로 불어오고 달은 기약함이 없으나 밤마다 떠오르네 다른 사람은 속세의 일을 말하지 마오 북창에 높이 누워 현원(軒轅)씨와 복희(伏羲)씨를 꿈꾼다네.

- 理事 相憲 載萬 元植 載凡 宜杓 宗燮
- 監事 載官
- 副會長 尚燮 載錄
- 會長 相直
- 顧問 源澤

南 謹賀新年 西 宗會

- 前會長 允求 在安
- 會長 應茂
- 總務 健燮
- 職員 旭煥
- 興輔 相圭 相泉 佑燮 慶燮 升求 康燮

青 仁會 (仁川) 謹賀新年

- 理事 英燮
- 總務 左輔 旭煥
- 監事 興輔 鉉燮
- 副會長 昌求 然澤 應茂 昌燮 健燮 明求
- 會長 相振
- 顧問 品求 載甲 棋赫 相吉 允求 在安
- 德求 駿求 慶燮 (백석) 慶燮 載重 載根
- 載日 賢輔 東錫 江水 在成 彝燮 相鶴
- 權燮 範求 光植 晚植 載讚 載春 載允
- 載範 載景 載南 宗秀 麟燮 載春 載允
- 愚讚 元輔 應烈 玉珍 奎燮 樞燮 鍾文
- 豪燮 健燮 (효성) 俊燮 奎燮 樞燮 英燮
- 康燮 萬根 道鎮 相均 의창 현보 중식

仁 謹賀新年 川 宗會

人事

재문 : 한국경제 편집국 부장
 成輔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 서울지점 기업금융부 부장
 載鎰 : 신세계 이마트부분 판매본부장
 화섭 : 한국남동발전 무주양수발전 처장
 아섭 : 한국남동발전 건설처장
 재화 : 법원행정처 법원서기관
 정보 : 한국관광공사 1급 홍보실장
 수화 : 연립뉴스(부국장대우)경남취재 본부장
 민섭 : 현대 H&S 상무 · 법인영남사업부장
 규영 : 우리은행 길음뉴타운 지점장
 영호 : 우리은행 응암동 지점장
 영복 : 삼호 전무승진
 우용 : SK(주) 재무관리실 재무담당
 진흥 : 행정안전부 서기관 승진
 정훈 : 조선스포츠 BM추진팀장
 재경 : SK증권 여삼역 지점장
 재호 : 한국조폐공사 제지본부 생산처 제지관리부장
 재진 : 현대모비스 상무
 원보 : 현대하이스코 이사대우
 부환 : 국민은행 부행장 상품그룹
 규섭 : 중소기업중앙회 PL지원팀장
 정보 : 광주광역시 건설교통국장
 재천 : 한국광해관리공단 영남지역 본부 광해복구팀장
 연식 : 한국광해관리공단 영남지역본부 수질환경연구팀장
 한식 :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센터 제도기획팀장
 동섭 :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상락 : 평화방송 평화관리국장
 인서 : 경향신문 스포츠칸 편집부장
 규상 : 두산중공업 사장
 東燮 : 동부건설 부사장(토목영업총괄)
 두진 : 국제종합기계 상무
 준구 : DK유이이엘 · 유테크 이사
 규복 : 한국가스공사 자산관리
 亨權 : 조선일보 경기 · 인천CS팀장
 규열 :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자력 본부장
 심호 : 감사원 국책과제 감사단 제1과장
 재근 : 감사원 원장비서실
 정보 : 광주광역시3급 건설교통국장
 규표 : 서울 서대문구 재정경제국장
 원섭 : 한미파슨스(주) 부사장
 세진 : 국민은행 청주남문지점장
 재오 : 국민은행 압구정 PB센터장
 영권 : 국민은행 주택공사 지점장
 좌근 : 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 비서팀장
 대섭 : 한국전력거래소 전력시장처장
 宗輔 : 신한생명부장 TM고객부
 權輔 : 신한생명 지점장 대구
 明周 : 한국산업단지공단(지역본부장) 경인본부
 재묵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리부장
 심섭 :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녹색성장금융
 형수 : 한국수출입은행 부장 해외투자금융
 영규 : 조인스닷컴 편집팀
 현오 : 한국전력기술 기계배관 기술처장
 병조 : 해양경찰청(총경급) 해양경찰학교 교무과장
 기식 : CBS 아나운서부장
 승현 : TV · 편성제작국 편성부장
 재달 :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 고용지원국장
 장보 : 대한주택공사 오산신도시 사업본부 건설사업1팀장

理事會費

斗燮	300,000	2008	副會長
甲輔	300,000	2008	副會長
贊求	300,000	2008	副會長
載冕	200,000	2008	監事
春植	200,000	2008	監事
載德	100,000	2007~8	釜山
然澤	50,000	2008	仁川
容爽	50,000	2008	醴泉
甲澤	100,000	2007~8	扶餘
東出	50,000	2008	三陟
東燮	50,000	2008	春川
相勳	50,000	2008	金浦
駿求	50,000	2008	仁川
相德	100,000	2007~8	安城
秀輔	50,000	2008	釜山
中鎭	50,000	2008	忠州
秀一	50,000	2008	全州
吉燮	50,000	2008	昌原
載潤	50,000	2008	하남시
安輔	50,000	2008	全州
容圭	50,000	2008	회현동
明輔	50,000	2008	金浦
仁求	50,000	* 2009	果川
載根	50,000	2008	醴泉
龍輔	50,000	2008	釜山

誠金 感謝합니다

宗報贊助

聲鎭	30,000	瑞山	廣州府尹公宗會	200,000	善山
高尺宗會	200,000	鎭川	유섭	100,000	망우동
勳輔	100,000	수유리	영보	50,000	龍仁
오섭	100,000	영양	재원	10,000	釜山
용석	50,000	신길	무수	30,000	宜寧
영섭	30,000	驪州	南서울宗會	100,000	
재홍	50,000	監查院	논산 익모종중	100,000	
광보	50,000	龍仁	상만	50,000	송과
상준	11,000	忠州	극택	50,000	고양시
?	30,000	신월7동			

합 祝 격

2008년도 사법행정고시합격자

▷사법고시 : 심성우 심연와 심우찬
 심은규 심재신

▷행정고시 : 심규열

全南大 인문대 신임학장에
 심을식 교수



심을식 교수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신임학장에 심을식 교수(불어불문학과)가 당선됐다.

최근 학장선거를 거쳐 당선된 심 교수는 “‘인문대학의 위기’라는 이야기가 회자된 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개선된 것은 거의 없다”며 “임기 동안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각 학과가 전공 교육은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 교수는 또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외국어 교육의 체계화 ▲문화관련 교과목 개설과 전공 활성화 ▲고전 읽기 프로그램 개발 등의 새로운 교육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교수들의 강의와 연구를 지원하는 행정·학과 우선의 예산편성, 공간 확보 및 복지시설 확충 등으로 소통의 인문대학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심 교수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어교육(불어전공)과 출신으로, 언어교육원 연구부장, 전남대 학술교류 및 대화협력위원, 유럽지역학 연구소장, 한국 프랑스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학장 임기는 2009년 2월 1일부터 2년간이다.

(2008. 12. 26일 무등일보 轉載)

告 白

- 沈榮燮(共成運輸會長, 前 大宗會 監事)
 2008년 12월 1일 오후7시 별세.
 아 들 : 재후 재순 재선
 딸 : 순자 명숙 영자
- 沈仁植(태흥철강공업(주) 대표이사, 大宗會 理事)
 2008년 12월 24일 04시 10분에 숙환으로 별세.
 아들 : 병찬
 딸 : 영옥 희주
- 沈承澤(예산총회 회장, 大宗會 理事)
 승택 이사께서는 생전에 祖先事에 남다른 헌신 봉사 하였으나, 오랜 숙환으로 2009년 1월 12일 예산 삼성병원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아 들 : 相天 相學 相旭 相晳
 딸 : 相美 相淑 英姬
- 沈載德 前 國會議員
 민선1, 2기 경기수원시장과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심재덕 전 국회의원이 1월 14일 지병으로 별세.
 향년 70세.
 1999년 한국화장실협회, 2007년 세계화장실협회를 발족시키는 등 화장실문화운동을 활발히 펼쳐 '미스터 토요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아들 : 연찬(應輔) 현기
 딸 : 보영

기다림

가벼운 몸짓 떠도는 구름처럼
 달리는 한줄기 바람처럼

칩칩산중 오지마을 지나고
 가파른 깔딱고개 넘고
 깊고 푸른 바다 건너서

유연한 몸짓
 환한 웃음으로 찾아오려나.

기다림은 만남을 수반한 기쁨이고
 사랑 움직이는 자의 희망이며
 영원한 사랑의 방정식인 것들

- 沈宜杓 -

송 금 안 내

찬조금 또는 중보회비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청송심씨대중회)
- 농 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중회)

* 2008년 6월 5일자로 신규 개설

청 송 심 씨 대 중 회
 전화 : (02)2267-7857

5처산소 유사 연락처

세	관 직	소재	유사	전화 번호
시 조	문림랑공	청 송	相燾	010-6889-7733
			宜亮	016-9225-3618
2 세조	합문지후공	함 열	瑠燮	011-676-0892
3 세조	청화부원군	안 성	光澤	011-732-5768
4 세조	청성백	연 천	良燮	011-728-2104
4세조비	청주송씨	청 주	成輔	019-480-9994
靑 松			청송심씨 찬경회관	054-874-3400
			館長 載洪	018-505-7611
淸 州			청 주 회 관	043-286-7857
악은공중회 총무 相學				010-7136-3572